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반도 지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한
도자춧대연구

- 산과 섬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공예학과
구민경

한반도 지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한
도자촛대연구

- 산과 섬을 중심으로 -

김 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구 민 경

인 준 서

구민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랫동안 문명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섭렵하는 과정에서 진화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과학의 발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연이 급격히 훼손되어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가 환경에 지배된다는 조형사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의 특징을 觀照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이미지를 ‘촛대’ 라는 형식에 부합시켜 건조한 아파트 중심의 거주공간에서 소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형상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양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국의 자연관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과 문화적 관계를 조망한 뒤, 여기서 도출된 이미지를 촛대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안점으로서 지형적 특징에서 도출된 이미지를 촛대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디자인화 하였으며,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의미를 낼 수 있는 안정된 기형(器形)으로 제작하였다. 한반도는 대부분 노년기나 장년기에 해당되는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형의 연령에 나타나는 특징을 본인의 조형의식으로 재해석한 뒤, 공예목적에 부합한 요소를 등장시켜 제작자의 관념적 이해와 의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작품에 응용하고, 또한 생활공간에서 공예의 수공예 목적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단지 기능목적의 단순

성을 떠나서 심미성이 또 다른 현대공예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대안이라는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작품제작은 복수제작이 가능한 석고성형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실내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백색도가 좋은 점토와 유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인들의 정서와 공예품의 새로운 가치에 염두를 둔 본 연구의 작품을 통해 공예시장의 활성화에도 새로운 계기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본론	5
1. 자연관에 관한 고찰	5
1) 동양의 자연관	6
2) 21세기의 자연과 사람	8
2. 지형에 관한 고찰	10
1) 한반도의 지형적 고찰.....	10
2) 지형적 특징이 미의식에 미친 영향.....	11
3. 촛대에 관한 고찰	13
1) 촛대의 역할	13
2) 현대주거공간에서 촛대의 역할	14
4. 지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촛대 디자인	16
1) 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	16
2) 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	17

3)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 사례.....	19
Ⅲ. 작품제작 및 설명.....	25
1. 제작의도	25
2. 작품구상	26
3. 제작방법	28
4. 시작품 및 설명	35
Ⅳ. 결 론	5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투명유와 산화코발트 혼합비	31
【표 2】 코발트유와 고화도안료 혼합비	31
【표 3】 유약조합비	32
【표 4】 소성온도표	33

도 목 차

【도판 1】 최남길 作 [생성]	21
【도판 2】 서병호 作 [기억 080902]	21
【도판 3】 이승희 作 [도자분수 흙과 나무와 물]	21
【도판 4】 한홍곤 作 [설산]	21
【도판 5】 한향림 作 [깊은 가을]	22
【도판 6】 나탈리 라덴마키 作	22
【도판 7】 데이비드 테일러 作	22
【도판 8】 나오토 후카사와 作	22
【도판 9】 山水文壇 (백제)	23
【도판 10】 유영국 作 [산 1968]	23

【도판 11】 시가 새겨진 촛대 은제(조선).....	23
【도판 12】 백동촛대(조선)	23
【도판 13】 한국의 산 I	24
【도판 14】 한국의 산 II	24
【도판 15】 다도해 전경	24

시작품 목차

【시작품 1】 흔적을 품다	36
【시작품 2】 달빛을 쫓는 산 I	37
【시작품 3】 산 속에서	39
【시작품 4】 달빛을 쫓는 산 II	41
【시작품 5】 안아주다.....	42
【시작품 6】 흐름	46
【시작품 7】 깨어나다.....	51
【시작품 8】 You and I	53
【시작품 9】 wall series	55

I. 서론

1. 연구목적

물질이 풍부하고 삶이 여유로워진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을 갈망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편리성 이면에는 현대인의 나약한 존재를 탄식하면서 자연에 더욱 귀속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자연과 역사는 예술의 어머니” 라고 할 만큼 자연을 예술의 원천이라는 뜻하며,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조선의 山川과 전통문화를 매우 흠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자연의 독특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겨왔으며 한국의 자연관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연관은 한국 전통미술의 바탕을 흐르는 ‘자연주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획일화 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쉽게 변질되어가는 자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연관의 고찰을 통해 한국인에게 내재되어있는 근본적인 자연주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작품의 근간이 되는 내용적 측면으로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과 환경적 요소를 본인의 정제된 미의식을 통해 지형에서 보이는 반복적 곡선을 적합한 형상으로 이미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획일화 되어버린 아파트중심의 생활공간에 준비된 이미지를 장식적 요소로 도입하여 제작함으로써 현대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이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을 꿈꾸
듯이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는 자연의 이미지가 내재된 본인의 쫓대에서
소자연을 경험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크게 나타나며, 여전히 자연은 우리의 생활과 관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자연은 대부분 노년기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지괴를 이루며 산지는 낮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에 영향 받은 우리의 미의식과 예술미는 한국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의 가치를 재고하면서 자연을 영감의 대상으로 삼아 미의식을 반영하고 재해석하여 실용적이며 심미적인 도자촛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에 대한 고찰은 산과 섬의 형태들을 형상화하였고, 이를 통해 도자촛대가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단순한 공예적인 의미가 아닌 인간의 감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확장된 의미의 조형작품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공예가 일품공예의 수공예 요소와 미적가치가 표출되는 예술작품으로 폭넓게 영역을 넓혀 현대의 생활공간에 기능을 겸비한 장식품으로 상용됨과 동시에 현대인에게 부족한 여유와 감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공예의 새로운 시대적 담론에 부응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작방법으로는 복수제작이 용이한 석고성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미지화된 지형을 촛대의 형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우선 점토를 원형으로 제작한 후, 석고를 부어 假원형틀을 제작하였으며, 틀 안에 있는 점토를 떼어낸 다음 이형제를 칠하고, 다시 석고를 부어 원형을 만들었다. 거푸집 제작

에 있어서는 촛대가 위치할 자리를 잡은 뒤 2~3개의 틀로 구성된 석고 거푸집을 만들어 건조를 한 뒤 성형에 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 시 분리선이 기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석고 쪽과 면 분리에 유념하였다. 석고를 통한 성형방법은 반복적 생산에 적합한 작업이며 또한 정확한 수치의 완성품을 얻을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개체로 완성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들 여러 개가 구성되어 세트¹⁾을 이루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나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그 형의 외곽선에 일치되는 형상을 반복하여 제작함으로써 세트의 구성원을 제작하였다. 이 후 여러 형태의 조합을 시도하여 다양한 세트를 만들어내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장식성이 강조된 이미지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촛대라는 기능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촛대의 봉과 초 받침은 금속을 이용하여 금속촛대와 도자의 물성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타 재료의 결합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 우홍룡, 『디자인사고와 방법』, p.180 세트의 개념은 세트예로서 커피세트가 컵 접시 스푼 등으로 구성되어 그 도구 하나하나가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조합하여 집약되어야 비로소 전체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II. 본 론

1. 자연관에 관한 연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몸과 마음은 하나로,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의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동양의 사상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밀접한 유기적관계로 인식하여 왔으며 한국의 전통적 사상과 미의식에도 이러한 의식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미는 동양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의 미’³⁾라고 일컬으며, 환경적 요인에 따르는 자연관과 미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고유의 미의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도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동양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이다. 인간은 자연생명체의 일부로써 자연을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음세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 것을 당위성 책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자연관에 대한 동양사상의 고찰과 현대에 필요한 자연에 대한 의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장성철, 『직장인을 위한 그림치료』, p.4

3)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p.47

1) 동양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은 예로부터 자연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바라보는 동양인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⁴⁾ ‘自然’이란 한자 의미는 ‘거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연에 대한 동양인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는 관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서양의 자연관이 주장하는 ‘자연과 인간은 독립되고 분리된 객체’라는 사상과는 다르게, 동양은 예로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자연관을 이해하려는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⁵⁾

동양의 종교들이 그 사상적 뿌리가 자연과 연관되었다는 사실⁶⁾은 이미 인류가 자연의 중요성을 오랜 세월 걸쳐 탐구하고 인정하여 왔다는 점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중 노장사상은 동양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여기에서 일컫는 道와 無爲自然은 동양의 자연관을 대표한다. 노자사상의 道德經 제 25장에서 ‘道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자연은 만물의 근원을 이룬다는 뜻이고, 無爲自然의 ‘無爲’는 자연의 상태를 가장 잘 보존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의 자연관에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의 미의식을 표명하게 되었다.

4) 박영수, 이수장 공저, 『인간 그리고 환경』, p.98

5) 임창섭,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p.155

6) 오홍석,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p.3

이는 ‘無爲는 곧 自然을 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⁷⁾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관에서 비롯되는 ‘無爲’가 美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표현되고 있는 한국의 미의식이 자연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自然을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의 미의식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국의 미술품이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융합과 조화를 이루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우리가 한국의 미를 말할 때 ‘自然의 美’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더불어 한국의 미의식은 자연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형적 특색으로 이루어진 농업이라는 경제적 환경과 이로 인해 평민문화가 오래 유지되었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종교사상의 요소가 미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양의 자연관은 한국의 자연관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는 한국의 미의식은 한국의 특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자연에 대한 친밀한 감정으로 해석되어 한국미술의 바탕에 흐르는 자연주의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⁸⁾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들의 자연관을 통해 현대시대에서도 한국의 미의식을 모색하는 방안이 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자연주의’를 작품제작의 근원적 사고로 적용하고자 한다.

7) 임창섭,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p.157

8)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p.33

2) 21세기 사람과 자연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긴 시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여전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자연에서 찾는 것은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화로 인해 잃어버린 자연성으로 나타나는 자연결핍 장애⁹⁾를 비롯하여,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기원이며 터전인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대에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대두된 에코힐링(Eco-Healing: 자연 치유)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 활동하며 치유법을 찾는 행동으로써 여전히 자연이 인간의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을 취하는 근원지임을 말해준다.¹⁰⁾ 이와 같이 인간이 본연의 자세를 찾아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은 단지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현대의 움직임 안에서 자연을 미적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발전하기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타당성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감은 예술적 표현의 대상으로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¹¹⁾

9) 리처드루브, 『자연에서 떨어진 아이들』, p.47

10)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 발췌, 2012.1.5.

11) 유리오 세판마, 『환경의 아름다움』, p.100, 자연을 예술의 미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간이 표현하는 것은 회귀하고 특별한 체험이다. 예술의 대상으로 주변 환경 즉 자연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사이의 교섭을 통해 얻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인에게 자연이라는 대상은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찾는 장소이고, 감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표현의 미적 대상이 되어 감정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지닌다.

현대사회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한 부분인 산은 활력소이자, 오감을 자극하는 곳으로 현대인들은 산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자연을 찾는 움직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지는 자연의 순수 형식적 조합이기도 하다.

2. 지형에 관한 고찰

1) 한반도의 지형적 고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지형의 발달사를 개관해보면 오늘날의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중생대로, 조산운동 시대 이후 여러 차례 일어난 지각운동이다.¹²⁾

지형은 일반적으로 조산운동, 화산활동 등의 지각변동과 삭박(削剝)·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지형은 신생대 제 3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지각 운동 없이 완만한 조륙 운동만이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지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의 지형은 기복이 별로 없는 노년기지형이 많으며 산지 또한 난산(亂山) 지형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다. 노년기 지형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지형의 기복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면의 경사는 계속 완만해진다.

따라서 우리의 지형을 세계적인 대지형과 비교해 볼 때 장년기의 험준한 산은 극히 적고 저산성(低山性), 구륙성(丘陸性)의 낮은 토지가 대체적으

1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p.199, 권동희, 『한국의 지형』, p.84, :중생대를 지나면서 트라이아스기(2억4,000만~2억3,000만년전), 송림조산운동, 쥐라기(1억 6,000만년~9,700만년전), 대보조산운동(9,700만 년~5,700만년전), 불국사 조산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중 한반도지체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보조산운동 이었다.

로 많다.¹³⁾ 70%가 산지 지형으로 구성되어있는 한반도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산성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¹⁴⁾ 특히 기복이 낮은 준평원 위에 조그맣게 솟아있는 언덕형태의 산지가 많은데 이러한 낮은 산지를 잔구성(殘丘性)산지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오랜 침식의 영향으로 잔구성산지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 완만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 노년기 지형과 침식과정으로 인한 저산성산지의 생성과정은 한반도의 조형의식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지형의 형성은 기후, 토양, 水系, 植生の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그 나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이루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조형의식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형적 특징이 미의식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지이지만 1500m 이상인 산지는 전체 국토의 약 4%에 불과하고, 1000~1500m의 산지는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00m 정도의 낮은 산지는 전 국토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균 고도는 482m로, 아시아의 평균 고도인 960m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안정한 지괴를 이루고 있으며 노년기 산이 많아 산이

1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p.212

14) 권동희, 『한국의 지형』, p.82

높지 않으며, 완만하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에서 보이는 안정된 선을 통해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옛 속담인 ‘山水는 人物을 낳는다.’ 는 말의 의미에서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주변에서 쉽게 산을 접할 수 있다. <도 10>작품에 그려진 삼각형의 형태를 산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완만하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는 환경 때문이다. 산의 형태인 삼각형에 대해서 기이학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것보다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기호관념과 관계되어 지형학에 기반을 두는 미의식 또는 조형의식을 시사해준다.¹⁶⁾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연에서 형성되어진 형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고스란히 우리의 미의식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예술작품으로 표현되어 같은 자연을 바라보고 살아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유의 미의식으로 표출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산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이고, 우리 고유의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상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은 우리의 미의식을 형성시켜주는 환경적 요인이며,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를 통한 예술의 무한한 영감을 지닌 원천지라 할 수 있다.

15) 원성혜, 「陶磁를 통한 季節의 이미지 形象化 : 山의 형태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6

16)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p.190, 요약

3. 촛대에 관한 고찰

1) 촛대의 역할

촛대는 인류가 어두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촛대의 기원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촛대의 본질적 기능은 불을 비추는 조명 역할이었으나 장식물로서의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물로 발견된 촛대를 살펴보면 기능적이면서 형태의미를 갖춘 장식적인 다양한 촛대를 많이 발견 할 수 있다<도11>.

과거에 초는 생산 공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가치가 높아 이로 인해 촛대는 귀중품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촛대의 형태와 문양이 사용자의 권력이나 부를 표현하는 장식적으로 이용되었다.¹⁷⁾ 쓰임의 기능을 바탕으로, 촛대의 장식적인 기능이 돋보이는 조선시대의 백동촛대<도12>는 다소 복잡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과거에도 촛대가 실용성외에도 장식적인 기능으로 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촛대는 기능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예전과는 큰 변함이 없지만, 촛대의 기능적인 부분 이상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보다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명의 발명과 현대문명의 발전으로 더 이상 촛대는 불을 비춰주는

17) 심희정,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 도자촛대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4

용도로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촛대는 다양한 역할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촛대는 종교적으로 의미성을 지니기도 하며¹⁸⁾ 촛불을 사용하는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촛대가 장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실내공간 내의 주요한 장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미적효과를 나타내는 미적 가치의 예술품의 역할로 활용되고 있음은 미술전시 등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촛대는 인류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소재로서 사람들의 삶과 깊게 연관된 인상적인 스토리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그 형상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조형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조명이라는 실용적 역할 이외에 예술 또는 장식용품으로써의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대주거공간에서 촛대의 역할

현대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활공간은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단순화 되어가고 있으며 실내공간에 사용되는 물건들은 장식보다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한편, 감성적인 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욕구도 여전히 소품(장식품)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 중 촛대는 기능과 미의 관계 속에서 예로부터 존재하여 왔다. 현대에는 어둠을 밝히는 원래의 목

18) 심희정,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 도자촛대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4 :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제례의식과 혼례의식에서 초를 켜는데, 이는 불을 밝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속적 의미와 축복의 의미로 그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에서 벗어나 빛의 효과를 연출하는 장식조명으로 사용되어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촛대에 꽂히는 초가 장식적인 조명으로 관심 받고 있는 것은 초의 조명이 조도의 변화에 따라 신체가 자극을 받는 물리적 반응으로 인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 동요, 전달은 빛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장식적 조명의 빛은 불안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인의 삶에 심리적 안정감을 일으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¹⁹⁾

이러한 이유로 현대 생활 속에 새로운 촛대의 역할은 조형성을 띠는 촛대부터 인테리어 요소를 지니는 촛대 등 촛대자체만으로 훌륭한 소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본 딴 촛대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²⁰⁾

또한 조형성을 지닌 촛대는 현대사회에서 감성의 전달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활공간 내에서 정서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장식품으로써의 미적 가치를 표출하고 다양한 촛대의 기능으로 그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19) 심희정,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 도자촛대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4

20) 네이버 뉴스, '장식성이 강해진 촛대' (패션인테리어&하우스), 2008

4. 지형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촛대 디자인

1) 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디자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산은 노년기지형으로서 고도가 높지 않아 안정적이며, 낮은 곡선으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자연을 바라보고 살아온 조상들이 창조한 예술품이나 전통공예품에서 보이는 한국의 미는 자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고유의 미로 자리잡아왔으며, 고유의 미의식은 여전히 현대의 공예품이나 예술품에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고유의 미의식을 표출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감성을 통해 작품에 산의 유기적인 형태와 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살려 촛대의 형태에 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에 내재시키고자 하는 조형의지를 염두하며 제작하였다. 작품에 내재된 산의 이미지는 산이 이루는 선과, 산과 평야가 이루는 자연의 풍경을 모티브로 하여 단순화 또는 반복의 연상작업(聯想作業)을 통해 특정한 형태로 구성 하였다.

<도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들과 산의 능선이 중첩되어 이루어지는 선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우리의 산에서 보이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유기적인 곡선을 중점으로 산의 다양한 형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중첩되는 부분에서 보이는 ‘선의 반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의 형태를 단순화

하여 곡선적인형상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도14>에서 보이는 산은 기복이 낮은 준평원 위에 조그맣게 솟아있는 언덕형태가 특징적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풍광을 작업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으며 작업의 표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 형태의 개체들이 모여 연출되는 공간이 마치 산과 산 앞에 이루어지는 평야로 구성되어 하나의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풍광이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작품제작 및 구성을 통하여 각 작품이 산의 형상을 이미지화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가 축대로 구체화되어 설치되었을 때, 실내에서 자연스러운 공간을 구성하고 더불어, 축대작품이 그 공간속에서 예술작품으로서 감상되어지는 장식요소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작하였다.

2) 섬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디자인

본 연구자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자연속의 산을 모티브로 조형작업을 진행하였다. 자연관을 통한 작품의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하기위해서 한반도의 자연으로부터 또 다른 영감을 통한 이미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관찰 중 산지지가 침강하여 높은 산지가 섬으로 남게 된 한반도 서남해안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의 다도해를 주목하였다. 이를 계기로 섬에 대한 특정한 형상을 관찰하게 되었으며, 수면 위에 떠 있는 듯한

섬의 현상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다 위의 떠있는 섬들은 <도15>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며 하나의 개체를 이루며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섬들은 산처럼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어 산의 동적인 형태와 구분하여 섬의 형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한 후 작업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 육지와 산의 일부였음을 고려하며 섬이 바다에 떠있는 단면적인 형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바다 안에서 이어져 있는 섬의 전반적인 형태를 생각하며 각 섬의 형상을 재현하는 작업에 임하였다. 섬을 표현한 이미지는 곡선의 흐름을 완만하게 표현하여 형태를 형성시키는 조형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섬의 구체적 형상작업 또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표현하여 함께 배치하고 연출하는 세트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서 얻은 영감이 하나의 특정한 미의식을 토대로 형상화되었으며 조형작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

3)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작품사례

자연은 예술가가 영감을 얻는 근원지이며, 자연에서 얻은 영감은 예술가의 손에 거쳐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된다. 자연이 내포하는 고유의 의미성과 자연을 통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유기적인 형태로 형상화한 작품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현대시대에 촛대를 재조명하여 디자인한 사례를 참고로 연구하였다.

[도판 1] 최남길작 「생성」

자연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강렬한 생성과 생명력의 이미지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상화한 듯 한 느낌을 주는 조형작품이다.

[도판 2] 서병호작 「기억080902」

한국의 완만한 산을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 투박한 재질이지만 리듬감과 동양적인 부드러움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도판 3] 이승희작 「도자분수 흙과 나무와 물」

이 작품은 흙과 나무와 물 이 형상화 되어 서로를 감싸는 듯한 형태가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자연의 강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도판 4] 한홍곤작 「설산」

눈 내린 산의 형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유약을 통해 표현을 자아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판 5] 한향림작 「깊은 가을」

산을 형상화 한 형태들이 겹겹이 보이도록 하여 중첩된 깊은 산을 연상케 하며, 작품에서 보이는 색감은 가을의 넓고 깊은 산의 전경을 보여주는

듯하다.

[도판 6] 나탈리 라덴마키작

단순하고 유기적인 형태이면서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제품인 도자촛대이다. 배합과 결합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연출이 흥미롭다.

[도판 7] 데이비드 테일러작

현대사회에서 가공되지 않고 그자체가 순수함을 의미하듯이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듯 한 촛대의 디자인 작품이다.

[도판 8] 나오토 후카사와작

식물의 뿌리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표현한 도자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촛대가 새롭게 부각되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된 디자인 작품 중 하나이다.

참 고 작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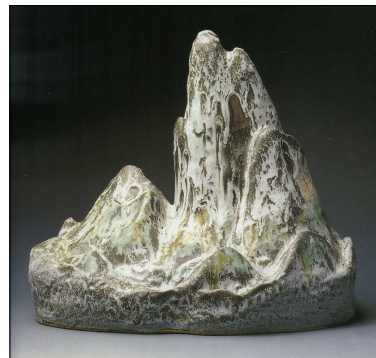
[도 1] 최남길작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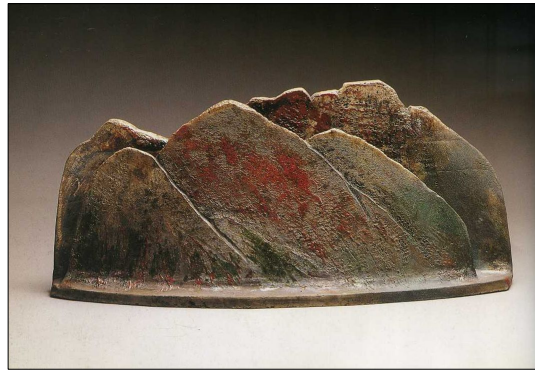
[도 2] 서병호작
[기억080902]



[도 3] 이승희작
[도자분수 흙과 나무와 물]



[도 4] 한홍곤작
[설산]



[도 5] 한향림작 [깊은 가을]



[도 6] 나탈리 라덴마키 작



[도 7] 데이비드 테일러 작



[도 8] 나오토 후카사와 작

참 고 도 판



[도 9] 山水文塼
(백제)



[도 10] 유영국 산 1968
<출처: 유영국미술문화재단>



[도 11] 시가 새겨진 촛대 은제
(조선)



[도 12] 백동 촛대
(조선)



[도 13] 한국의 산 I



[도 14] 한국의 산 II



[도 15] 다도해 전경
<출처: 광주일보>

Ⅲ.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의도

古수를 막론하고 자연이 예술의 무한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었던 것은 사람이 자연을 이상적이고 완벽한 곳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는 취미활동으로 들과 산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이는 일상의 일들이 삭막하고 건조한 도시생활에 환멸을 느낀 반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이 자연을 모티브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조형적 입장은 산과 섬의 이미지를 생활용품인 ‘촛대’라는 형식에 부합시킨 것으로써 서정성과 생활공간에서 가구나 인테리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민하면서 진행하였다.

특히 촛대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다양한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촛대의 장식적 요소가 반영되어 공예의 실용주의 개념에서 쓰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심미적 효과를 기대하는 예술조형작품의 주된 의도는 현대공예를 다기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표현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주된 의도는 다음과 같다

-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

-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현대공예의 확장적 역할
-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응용한 조형의식
- 다기능 요소의 새로운 공예로서의 대안
- 조형의 배열과 나열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구성

현대사회에서 공예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움직임 속에서 본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실용성과 예술성 두 요소를 적절하게 융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공예와 예술의 장르를 하나의 오브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작품구상

어떤 지식인이 오랜 외국생활을 끝내고 국내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난다. “나는 한국의 땅과 소리를 듣고 싶었다.” 라는 말의 의미 속에 묻어있는 애잔함과 진한 향수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다. 또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란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머무르기를 원한 것 역시 태어나고 성장한 배경이 뇌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여행을 통해 한반도와 다른 지리적 조건에 놓인 광활하게 자리 잡은 산의 형상을 보고 본 연구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한반도의 자연 환경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환경의 자연을 경험하고 나니, 자연의 형태를 비롯하여 표출되는 감성이 그 나라 고유의 미의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전통문화 가운데는 자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물들이 많이 있다.²¹⁾ 선조들의 지혜로운 慧眼으로 바라본 사물의 통찰력처럼 본인은 현대에 사는 현재의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산 시리즈] 는 한국의 산이 긴 산맥으로 형성되어 안정적인 산세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단일한 산봉우리들이 긴 산맥을 이루는 형상을 이미지작업의 모티브로 정하였다. 형태의 구상과 추후 연출을 계획하여, 다양한 크기와 여러 형태의 산 이미지를 기반으로 형작업을 하였다.

[섬 시리즈] 는 산지지가 침강하여 높은 산지가 섬으로 남게 된 섬의 특징을 반영하여, 한반도에 위치한 다도해의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바다에 떠 있는 섬의 형태를 형상화하였다. 이는 산의 형태를 작업한 후, 산 다음단계 작업으로 진행하여 한반도의 평야와 바다의 중심에 있는 산과 섬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21) <도 9> 山水文傳(백제), <출처: 네이버지식사전>: 산수의 풍경을 부조형식의 관형(管形)으로 떠서 만든 백제시대의 정방형 벽돌. 가로 28.8cm, 세로 29.6cm의 크기로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산경문은 백제 고지(故地)의 산세를 묘사한 듯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산경의 표현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회화적(繪畵的)인 표현이며, 특히 산봉우리를 둥글게 표현한 점은 백제작품이 아니어서는 볼 수 없다.

3. 제작방법

(1) 소 지

시작품으로 사용된 캐스팅 소지는 작업의 성형과 건조 후, 수축에 의한 작품의 변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열성이 좋으며 캐스팅이 용이하고 백색도가 뛰어난, 천안 소재의 현대소지를 사용하였다.

(2) 석고제형

원형을 제작할 때에는 수축률을 감안하여, 실 작품의 크기보다 15%를 확대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시작품1~9]의 원형제작은 점토로 제작하였으며, 제작자가 원하는 형태와 세밀한 표현을 하기에 용이한 조형작업을 할 수 있었다. 조형작업을 거쳐 형태가 나오면 형태에 맞게 면을 분할하여 한쪽을 제형하고 요철을 낸 뒤, 이형제(카리비누)를 사용하여 분리막이 형성도록 하였다. 나머지 한쪽 면을 같은 방법으로 제형 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천천히 건조시켰다. 틀 제작에 있어서 이장배출 후 석고 틀을 분리하여 탈형을 하는 단계에서 형태의 변형방지를 감안하여 시리즈의 형태에 따라 틀을 나누는 형식으로 작업하였다.

각 시리즈의 형태외곽선의 흐름을 파악하여 틀 분할은 [산시리즈]는 석고 틀이 두 틀 이상, 여러 틀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섬시리즈]는 석고 틀을 두 틀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시작품 산 형태 시리즈 석고 틀]



[시작품 섬 형태 시리즈 석고 틀]

(3) 성형

작품의 내용상 단일한 객체가 모여 세트개념으로의 연출을 고려하며 원형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모든 석고 틀에서 나오는 성형물은 동일한 시간을 거쳐 일정한 두께로 형성시켰다. 이장기법(Slip casting)으로 성형하였으며 기물두께의 수축률을 고려하여 0.5m~0.7m의 두께가 형성되면 이장을 배출하였다. 탈형을 할 때 석고 틀 내부에 두께가 형성되면 석고틀을 뒤집어 이장을 배출하고, 30분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후 탈형하였다. 탈형되어 나온 완성된 성형품은 건조과정에서 파손과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건조시켰으며 완전히 건조된 성형품은 완성 후 촛대의 봉을 꽂기 위한 위치에 수축률을 계산하여 드릴로 일정하게 구멍을 뚫었다.




(4) 유약 및 시유

유약은 산과 섬의 형태를 고려하여, 단일하고 명료한 색으로 표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명유와 코발트유 그리고 코발트유에 블랙안료를 첨가한 청흑유, 총 3가지 유약을 사용하였다. 색상실험 후 반영된 유약으로써, 코발트유는 투명유100%를 기본으로 산화코발트 3%, 5%, 7%씩을 첨가하므로써 색상과 광택의 차이로 인한 발색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산화코발트5%이상 첨가된 유약색상은 발색정도의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명료하고 청색의 발색을 띄는 5%가 첨가된 코발트유를 두 번째 유약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유약 실험은 선정된 코발트유약으로 블랙과 블루 고화도안료 0.5%를 각각 첨가하여 유약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코발트유의 색상변화를 알아보고자

실험한 것으로서 블루고화도안료 실험은 색상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었으며, 블랙고화도안료를 첨가한 유약은 광택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색상의 톤이 한층 가라앉아 청흑색을 띠는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세 번째 유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약시유방법은 균일하게 시유하기 위해 담금법으로 시유를 하였다.

첨가비 소성방법	3	5	7
산화소성			

〈표 1〉 투명유와 산화코발트 혼합 (%)

산화코발트유		
첨가비 소성방법	Black안료 0.5	Blue안료 0.5
산화소성		

〈표 2〉 산화코발트유(5%)와 고화도안료 혼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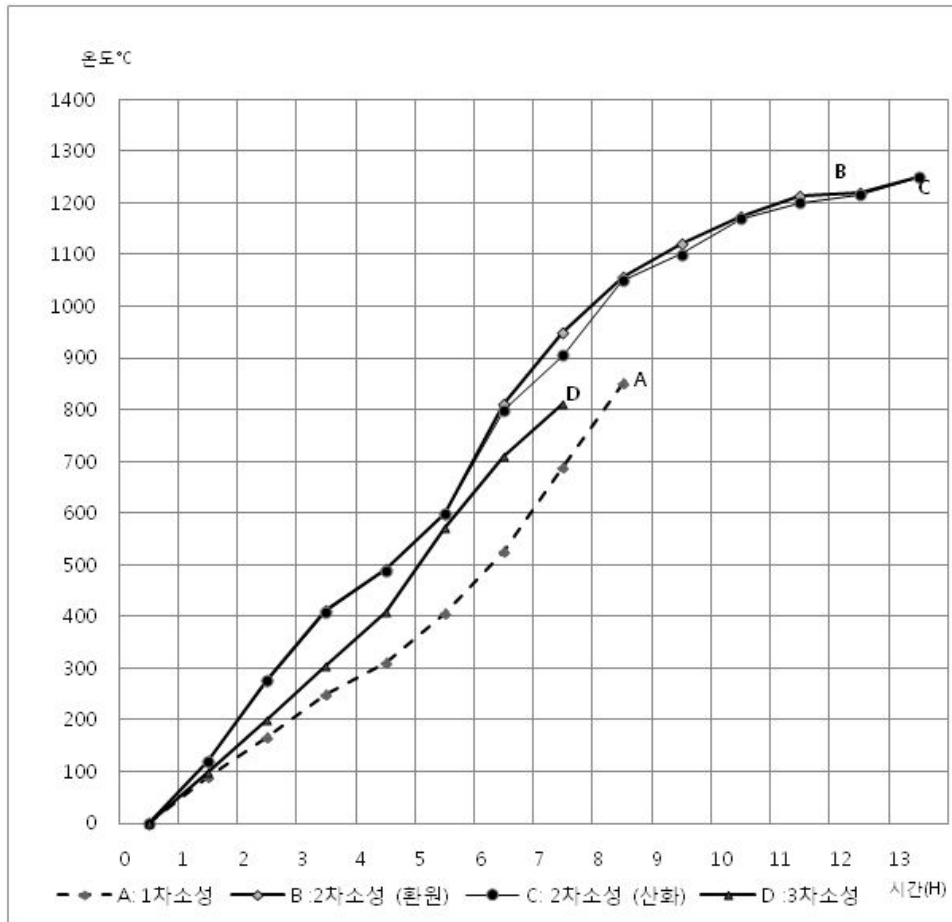
원료명		유 약		
		투명유	코발트유	청흑유
나트륨장석(부여)	$\text{Na}_2 \text{O} \cdot \text{Al}_2 \text{O}_3 \cdot 6\text{SiO}_2$	49.4	49.4	49.4
규석(부여)	SiO_2	9.4	9.4	9.4
석회석(금산)	CaCO_3	20.0	20.0	20.0
카올린 (인도네시아)	$\text{Al}_2 \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 \text{O}$	8.5	8.5	8.5
탄산바륨(중국)	BaCO_3	8.7	8.7	8.7
아연화	ZnO	4.0	4.0	4.0
산화코발트	$\text{Co}_2 \text{O}_3$		5.0	5.0
블랙고화도안료				0.5

〈표 3〉 유약 조합비 (%)

(5) 소성

소성은 유약에 따라 투명유는 환원소성을 하였으며, 코발트유와 청흑유는 산화소성을 하였다. 1차 소성은 기물의 강도를 높이고 유약의 흡수성을 고려하여, 500℃까지 중간 온도를 유지해가며 8~9시간에 걸쳐 870℃까지 소성하였다. 2차 소성(산화·환원)은 소지에 부착된 유약이 반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1250℃까지 약 13시간 전후에 걸쳐 산화소성을 하였으며, 3차 소성은 이미지전사지의 소성온도는 800℃가 적절하지만 수금 전사지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수금전사지의 온도에 맞춰 810℃까지 온도를 높여주고 8시간 소성하였다. 소성이 끝난 후 급랭으로 인한 유

약의 균열과 기물의 파손이 우려되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한 채 15시간 동안 서서히 식힌 후, 100℃ 내외에서 가마문을 열어 기물을 요출하였다.



<표 4> 소성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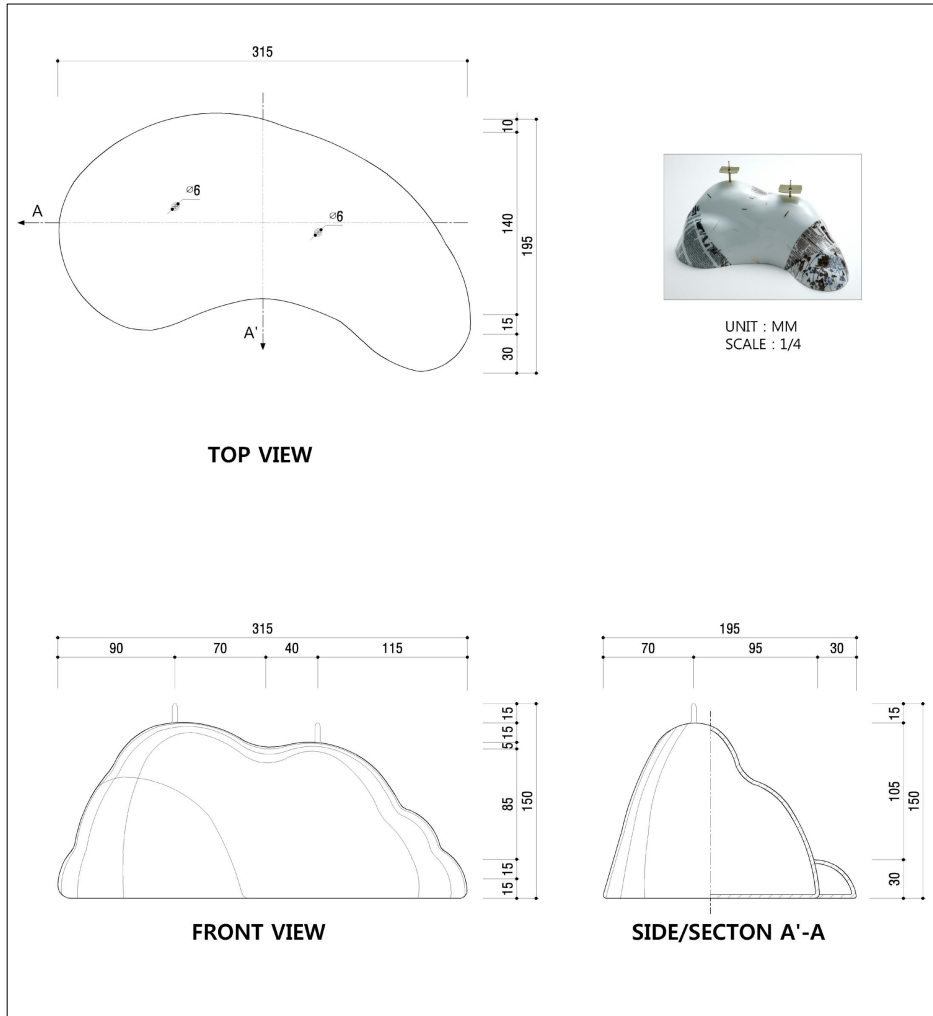
(6) 촛봉의 제작

작품의 기능성과 조형미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촛대의 자재는 금속공예의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의 형태에 촛봉이 세워지는 각도가 작품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구조를 고려하여 촛봉을 설치함으로써 초가 불안정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촛대의 봉길이와 너비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초의 너비와 길이를 고려하여 제작하였으며, 받침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형태와 면적을 대비하여 단순한 도형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4. 시작품 도면 및 설명

[시작품 1, 2 도면]



[시작품 1] 산 시리즈 - 흔적을 품다



투명유 , 1250℃, 환원소성 , 상회용 전자 (810℃), 315×195×150(mm)

한반도에 위치한 산의 큰 특징은 길게 이어져 있는 산맥과 기복이 점점 낮아져 완만한 형태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산의 이미지를 담은 형태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의 표면에는 전자 작업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의 가치가 변질되어가는 현대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순수 지향적시선과 반면 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의 복잡함으로 고유성을 잃은 의미를 지닌 이미지들을 중첩시켜 작품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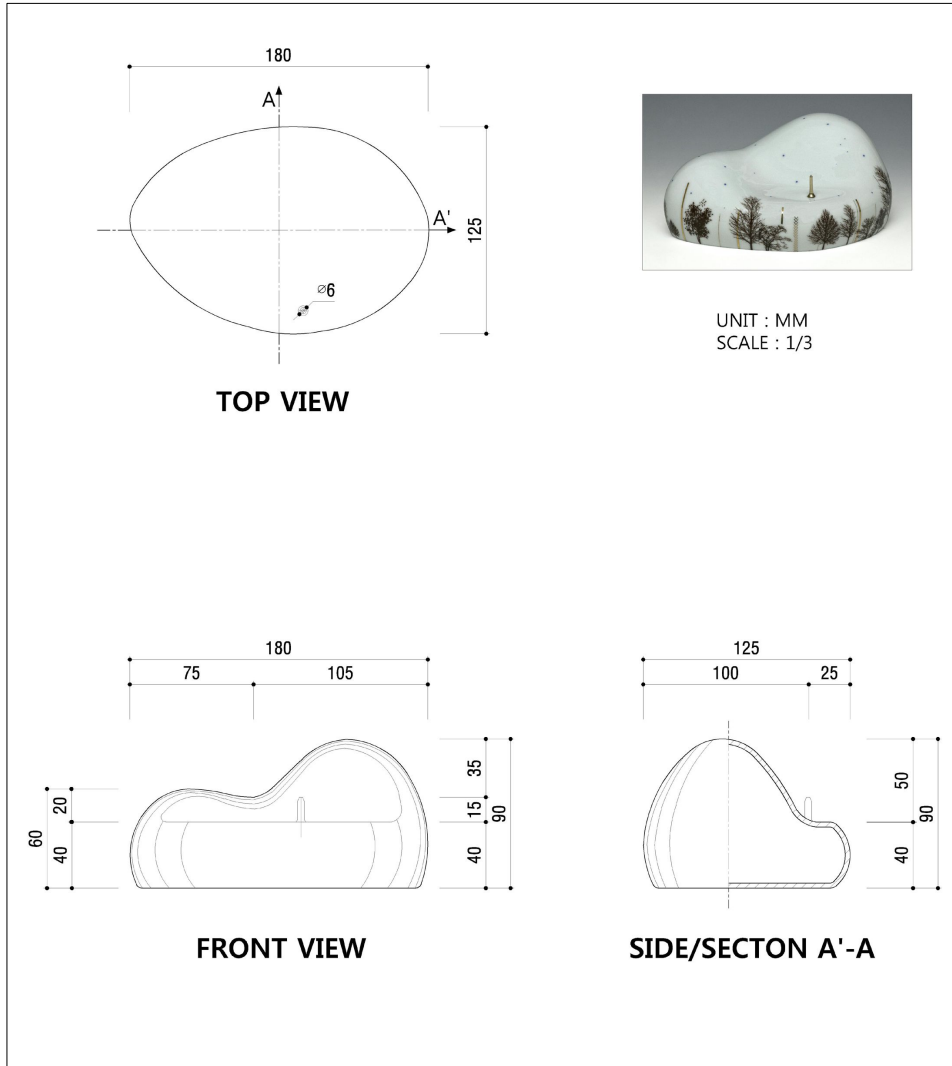
[시작품 2] 산 시리즈 - 달빛을 쫓는 산 I



코발트유 , 1250℃, 산화소성 , 상회용 전자 (810℃), 315×195×150(mm)

광활한 산의 밤은 자연에서 뿜어 나오는 빛으로 가득하다. 앞의 작품과 같은 형태를 코발트유로 시유하여 산화소성하였다. 작품의 표면장식은 금 전사지를 사용하여 밤에도 밝은 네온 빛이 가득한 도시가 아닌 고요한 산에서 비춰지는 달빛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시작품 3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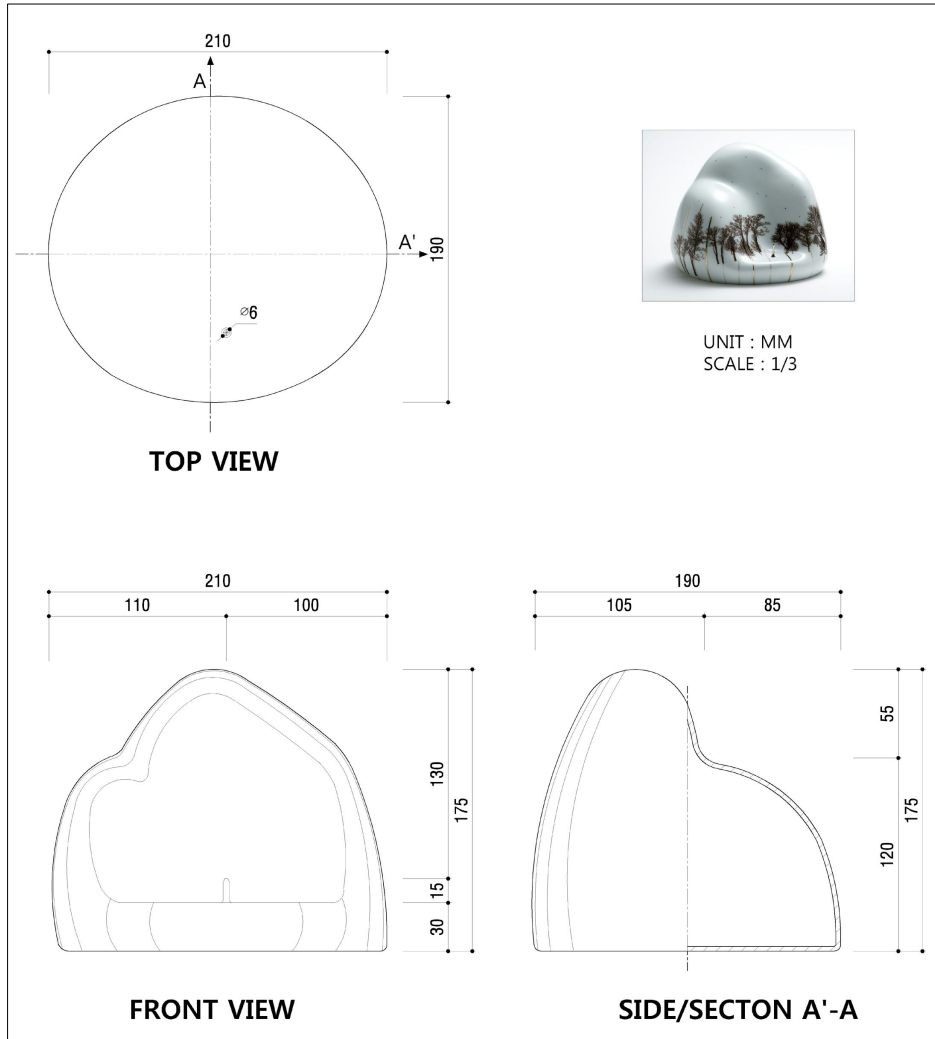
[시작품 3] 산 시리즈 - 산 속에서



투명유, 1250℃, 환원소성, 상회용 전사(810℃), 180×125×90(mm)

산이 품고 있는 밤하늘은 고요하지만 밝다. 이를 이미지화하여 서정적인 산의 밤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유로 시유한 후, 전사지를 이용해 산의 전경을 묘사하였다.

[시작품 4 도면]



[시작품 4] 산 시리즈 - 달빛을 쫓는 산Ⅱ



투명유 , 1250℃, 환원소성 , 상회용 전사 (810℃), 210×190×175(mm)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들이 있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산의 형태를 고찰하였으며, 이미지를 통해 포용력과 평온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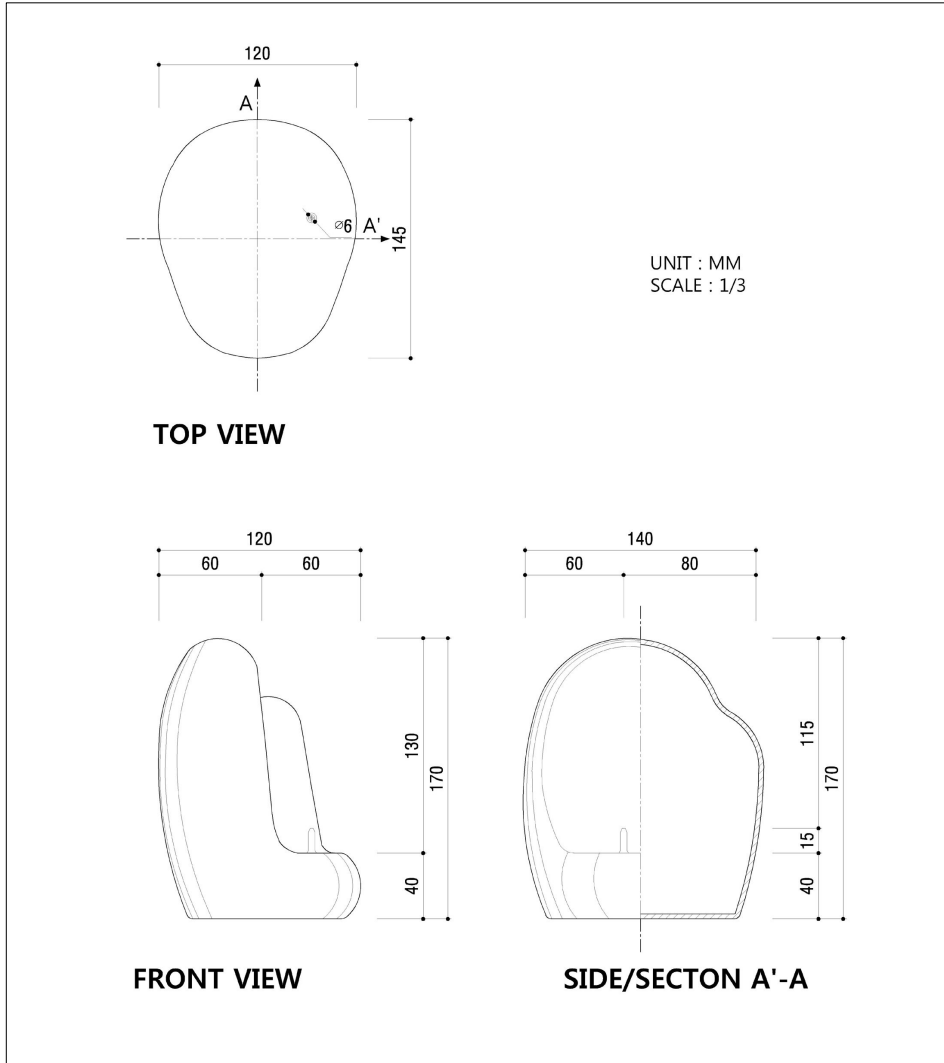
[시작품 5] 산 시리즈 - 안아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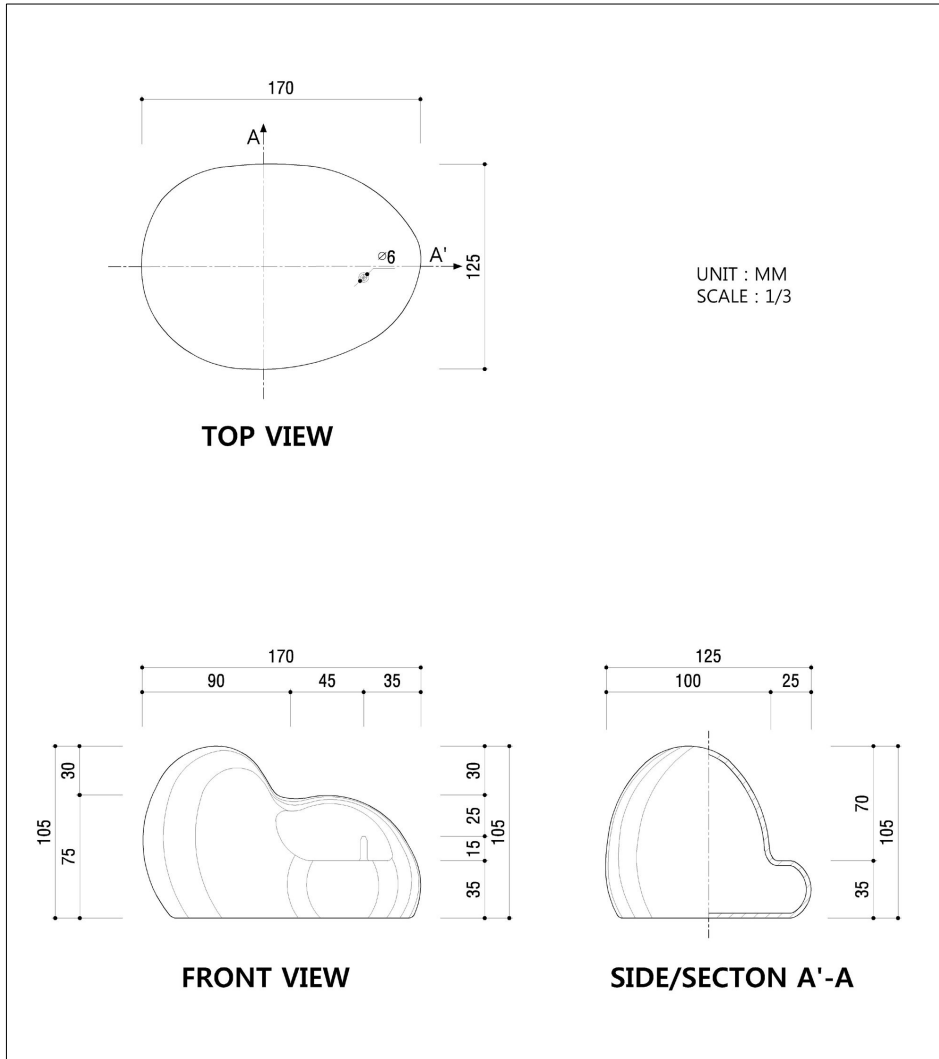
청흑유, 1250℃, 산화소성, 180×125×90(mm), 170×125×105(mm)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평온하게 놓여있는 산의 형상들을 심상화하였다. 연상작업을 통해 단일한 객체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작업하였으며, 서로가 공존하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며 개체를 함께 구성하여 연출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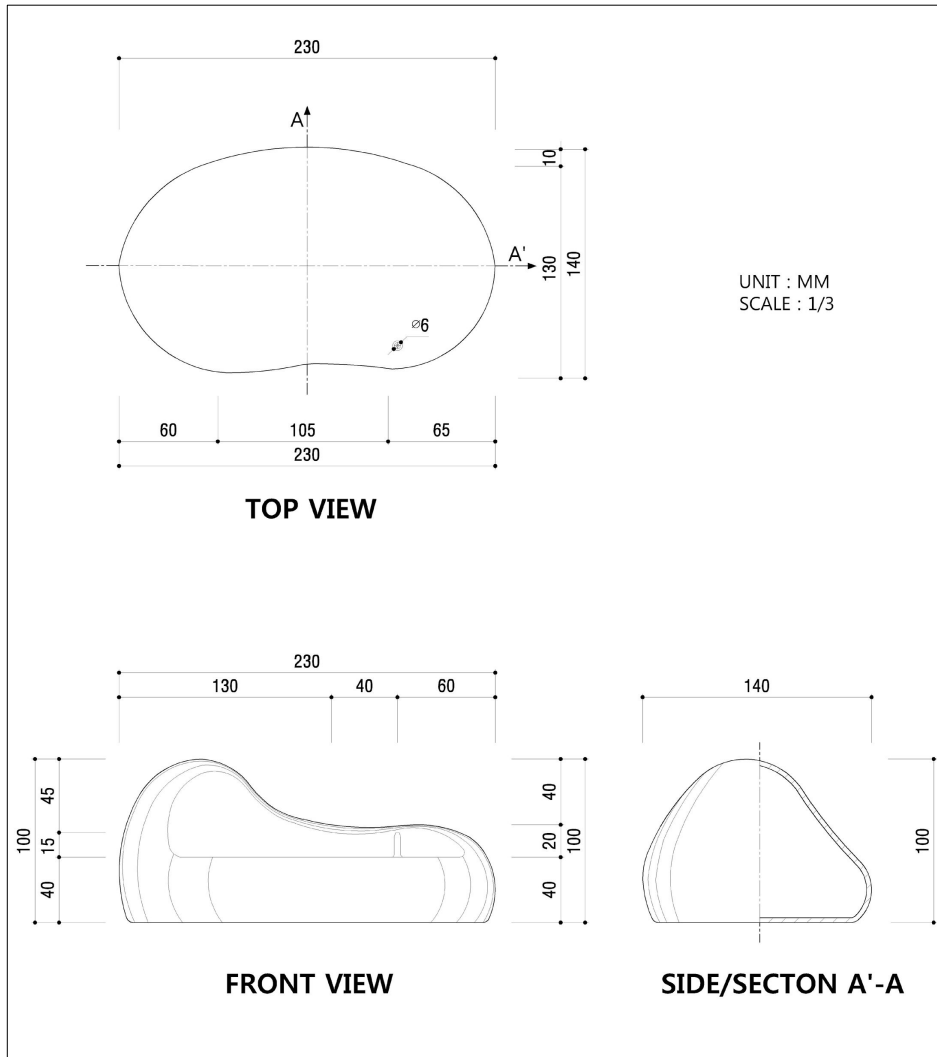
[시작품 6 도면] I



[시작품 6 도면] II



[시작품 6 도면] III



[시작품 6] 산 시리즈 - 흐름



코발트유 , 1250℃, 산화소성
230×140×100(mm), 145×120×170(mm), 170×125×10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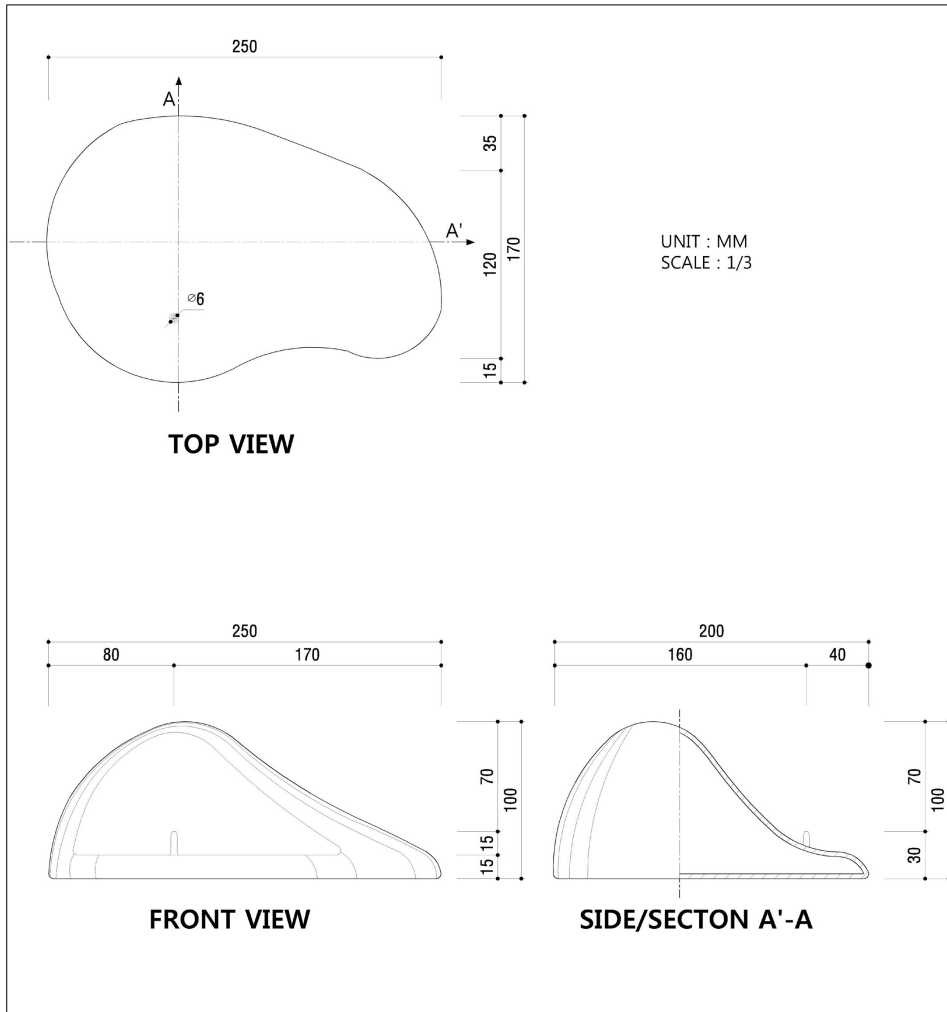


투명유 , 1250℃, 환원소성
170×125×105(mm), 145×120×170(mm), 230×140×1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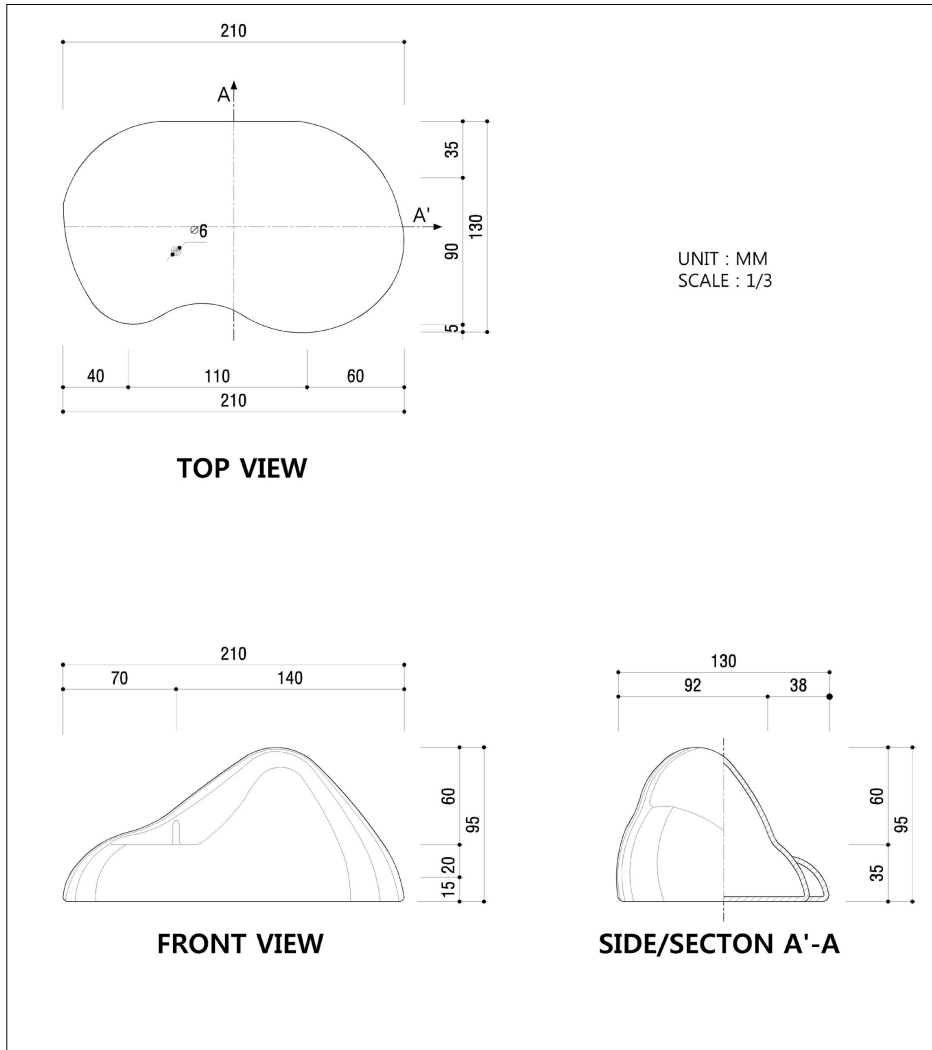
하나의 유니트가 산이고, 여러 개의 유니트가 모여 긴 산맥을 형성하고 마치 산세를 이루는 듯 선의 흐름을 연출하기 위해 제작한 [산 시리즈] 작품의 세트개념이다.

다양한 형태를 여러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 작품시리즈는 촛대작품이 공간에서 장식요소로 놓일 때, 조형작품이 장식품과 조형품의 요소를 지닌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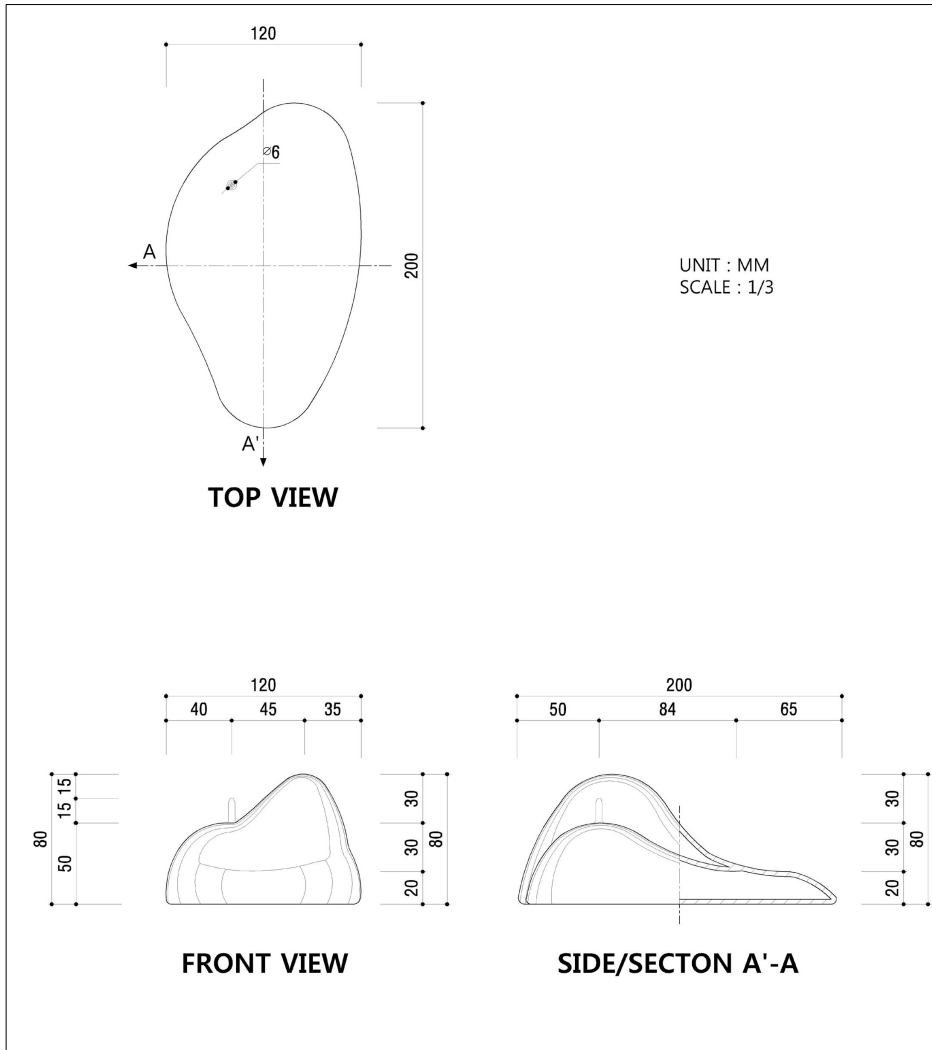
[시작품 7 도면] I



[시작품 7 도면] II



[시작품 7 도면] III



[시작품 7] 섬 시리즈 - 깨어나다



청흑유, 1250℃, 산화소성
210×120×80(mm), 250×170×100(mm), 210×130×95(mm)

[섬 시리즈] 작품은 세트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시리즈이다.
수많은 섬이 어우러져 푸른 바다위에 섬들이 떠있는 듯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섬의 형태를 이미지화하여 여러 형태를 한 공간에 구성하였다.
산과 물을 다 같이 아름답다는 뜻의 ‘山紫水麗’ 표현을 생각하며 다양한 형태의 섬들이 어우러져 바다위에 떠있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고자 한 작품이다.



코발트유, 1250℃, 산화소성
250×170×100(mm), 210×120×80(mm), 210×130×95(mm)



투명유, 1250℃, 환원소성
210×130×95(mm), 250×170×100(mm), 210×120×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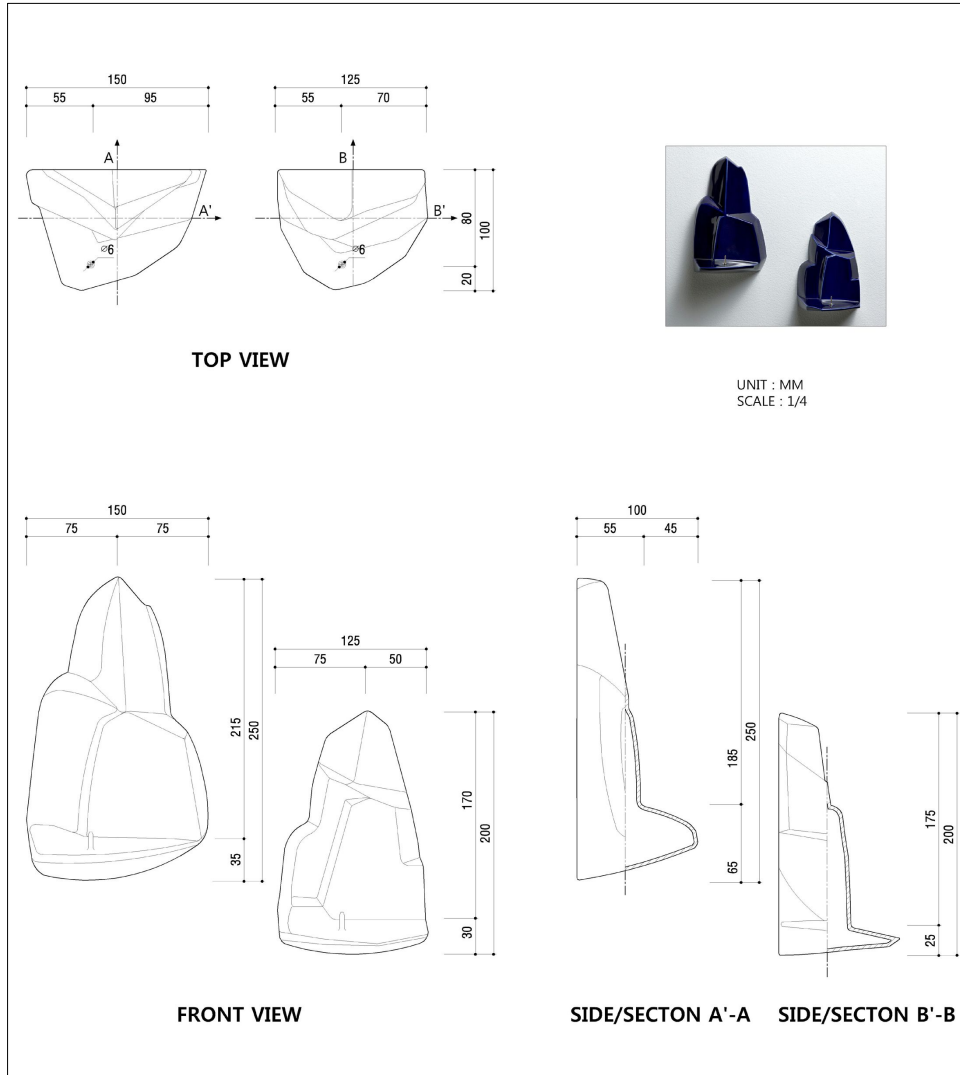
[시작품 8] 섬 시리즈 - You and I



코발트유, 1250℃, 산화소성, 315×195×150(mm)

산과 섬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한반도의 자연경관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작은 크기의 섬 형태를 제작하여 산을 형상화 한 작품과 함께 연출하였다.

[시작품 9 도면]



[시작품 9] wall series



코발트유, 1250℃, 산화소성,
150×250×195(mm), 125×200×100(mm)

한반도의 산과 섬의 형상이 마치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지듯이 자연의 형태를 평면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벽에 거는 촛대로써, 기능뿐 아니라 조형작품이 실내공간에서 효용성 있는 공예작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하였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조형작품이 규범화된 공간에서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며 작업한 작품이다.

IV. 結 論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밀브래스²²⁾가 말했듯이, 인간의 소중한 유산인 자연은 대대로 이해와 고찰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동양의 자연관과 한반도의 지형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촛대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모티브는 자연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미의식과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산’ 과 ‘섬’ 의 형상에서 도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의 ‘반복되는 곡선’ 과 섬의 ‘유기적인 곡선’ 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촛대의 형상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산과 섬의 형상을 모티브로 구체화한 배경은 촛대가 기능을 겸비한 장식품이나 예술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연을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 라는 행위를 통해 현대인이 자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제작한 본 연구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반도의 산과 섬을 형상화 하여 제작된 도자촛대는 현대의 생활공간에 ‘소자연’ 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을 살린 공예작품이 예술로서의 기능적 역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속가능한 사회』의 저자 및 미국 정치학자, L. W. Milbrath

둘째, 현대에 있어서 촛대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현대생활공간에서 촛대가 부여하는 가치는 ‘장식적 가치’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촛대의 제품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이 용이한 성형방법으로 공정을 단순화 하였으며, 특히 타 재료인 ‘금속’과의 결합을 통하여 실용성과 심미성을 극대화 하였다.

넷째, 작품의 구성 및 설치에 있어서 ‘세트’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복합적인배열을 통하여 단일한 구성의 작품일 때 보다 확장적 의미의 스토리를 전달하려 하였다. 이러한 설치행위에 있어 ‘해산’과 ‘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유니트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공예가 用의 기능은 물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기능적이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갖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미적가치가 부여되는 예술품이 되어 공예의 범주가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비롯되는 이미지와 그에 반영된 미의식을 통한 이해와 고찰이 현대공예의 다양한 조형작품으로 응용되어 연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동희 , 『한국의 지형』 , 한울 아카데미, 2006
- 김영기 , 『한국인의 조형의식』 , 창지사, 1991
- 김원룡 , 『한국미의 탐구』 , 열화당, 1978
- 박영숙, 이수장 , 『인간 그리고 환경』 , 경인문화사, 2009
- 오홍석 ,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 북메이트, 2006
- 우홍룡 , 『디자인사고와 방법』 , 창미 , 1996
- 임창섭 ,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 신구문화사, 2001
- 장성철 , 『직장인을 위한 그림치료』 , 북하우스, 2000
- 리처드 루브 , 『자연에서 떨어진 아이들』 , 즐거운 상상, 2007
- 유리오 세판마 , 『환경의 아름다움』 , 신구문화사, 2000

- 심희정, 「주제로 표현한 도자촛대 디자인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원성혜, 「陶磁를 통한 季節의 이미지 形象化 :山의 형태를 中心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네이버뉴스, 「패션인테리어 & 하우스- 장식성이 강해진 촛대」 , 2008
- 사이언스타임즈 , 「자연이 주는 치유, ‘에코힐링’ 」 , 2012.1.08

ABSTRACT

A Study of Ceramic CandleStick
Through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Korea
-Focusing on the Mountain and Island-

Koo, Min, Kyu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a long time, civilization has evolved in the process that human beings understand and discover the order of nature.

But, in modern times, it is very regrettable that nature is being damaged rapidly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aelstrom of change. Based on formative thinking that beauty is dominated by the environment, this thesis studied the purpose and reason making us experience small nature

in apartment centered living space built by contemplating and imag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rain in which we live by applying them to the form called ‘candlestick.’

After understanding Korean view of nature based on oriental view of nature and surveying the cultural relationship and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was conducted expecting the function of a candlestick as the crafts purpose to give birth to a beneficial purpose in living space.

Most of our country is the terrain corresponding to old age or manhood and it was reorganized through fragments of consciousness and ideological understanding by making elements suitable for the crafts purpose appear after reinterpreting islands including mountains with its own formation.

Through this study, inspiration obtained from nature was applied to works and the handicraft purpose of crafts was emphasized in living space because, apart from the simplicity only meeting the purpose of using, awareness that aesthetics is another important element of crafts and alternative was placed.

Works were produced in the plaster molding method that

multiple production is possible and by considering the interior space, clay whose whiteness is good and glaze were used.

The author hopes that this thesis work keeping emotion of modern people and the new value of craftwork in mind will be a head start in the activation of the craft market.